

# 비실체성 명사의 술어화와 논항구조\*

김 광 회  
(광양대학)

**Kim, Kwang-Hee. 2000. On the Predication of Noun Unsubstantive and Its Argument Structure. *Journal of the Linguistic Association of Korea*, 8(3), 155-181.** This paper explores the syntactic and semantic representations of the [N+hata(하다)] as a key to issues of classification of noun-unsubstantive and noun-substantive, syntacto-semantic features of verb hata(하다), and argument structure of [N+hata(하다)]. The analysis, set within the framework of Head-Driven Phrase Structure Grammar, treats the lexical and argument structure of complex verb [N+hata(하다)], and its grammatical informations. The basic method is to use the idea "Argument Composition". Argument Composition is the name for the syntactic composition of two argument-taking predicates, so that the higher predicate subcategorizes not only for the lower predicate, but also for the lower predicate's arguments. (Kwangyang College)

## 1. 머리말

1.1 명사가 술어의 일부가 되거나 그 자체가 술어로 사용되는 예로는 [N+이다] 구문과 [N+하다] 구문이 그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되다, -받다, -입다, -지다' 등과 결합하여 이루는 명사 술어화도 있지만, 문법적 특이성이나 용례의 수효에 있어 '하다'에 미치지 못한다. 이 글에서 연구의 중심 대상으로 삼는 [N+하다]형 술어화는 우리말에서 대단히 생산적인 어휘 구성의 방법이다. [N+하다]형 구성이 합성동사<sup>1)</sup>의 어휘 구성인지 아니

---

\* 이 논문은 1998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학술연구비에 의하여 지원되었음.(KRF 1998-001-A00076)

1. 이 글에서의 합성(compound)이란 직접 구성성분이 어기인 단어 구성법을 가리키는 것으로 복합법(complex)의 하위 개념이다.

면 구 구성인지에 대해서는 논자에 따라 이견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두 견해의 타당성 여부를 논의로 한다면, 필자가 집계한 결과 [N+하다]형 서술어는 우리말에서 35,500여 어휘에 이를 정도여서 우리말 서술어 구성의 대표적 형태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한글학회(1991) 우리말 큰사전 기준]. 물론 여기에는 '공부하다, 싱글벙글하다, 변하다'와 같이 명사나 부사, 어근과 결합하여 동사를 이루는 예도 있고, '건강하다, 깨끗하다, 편하다'에서처럼 형용사를 형성하기도 한다. 게다가 '같이하다, 함께하다, 좋아하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사나 동사의 활용형과 결합하여 동사를 구성하는 경우도 있다(김창섭, 1997:247).

1.2 이 글에서 다루는 [N+하다]형 동사와 관련된 문제들이 이미 현대국어 연구의 초기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많은 논쟁과 논의를 거친 국어 연구의 중심 주제 가운데 하나라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그동안의 연구들이 보이는 문제 접근 방식은 대체적으로 '하다'를 어휘 구성의 핵심 요소로 판단하고, '하다'를 둘러싼 다양한 의미 기능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것이었다. 그러는 가운데 '하다'를 접사로 분석하려는 견해와 동사로 인정하려는 태도 등 각기 상반되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고, 또 '하다'를 동사로 인정하는 연구자들 사이에도 '하다'를 본동사로 인정하자는 의견과 보조용언(보조동사와 보조형용사의 이중적 성격까지를 포괄하여)으로 보자는 의견 그리고 서구의 연구에 기대어서 우리말에 경동사(light verb) 범주를 설정하고 여기에 '하다'를 귀속시키려는 등의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그런데 그동안의 연구는 지나치게 동사 '하다'에 의존하고 있었다. 이는 오히려 이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을 좁히는 결과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의구심이 일어 이 문제를 다시 검토해 보려한다. 여기에 더하여 기존 연구들에 대한 대안으로서 '하다'에 선행하는 명사의 기능과 어휘적 결합의 과정, 명사와 동사 '하다'가 각각 갖고 있는 논항이 합성동사를 이루는 과정에서 어떻게 변용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지루한 논쟁 속에서 새로운 출구를 찾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실낱같은 기대가 필자에게 호기(豪氣)를 부리게 했다.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을 '하다'의 기능과 용법으로부터 명사와 '하다' 두 구성소의 논항구조로 전환하려는 것은 논항구조는 문장의 표현 형식을 결정짓는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이다. 특히 문장 표현의 형식을 결정하고, 문법성을 해석하고 판단하는 데 결정적인 지표가 되는 등 동사·의미론의 요체라 할 만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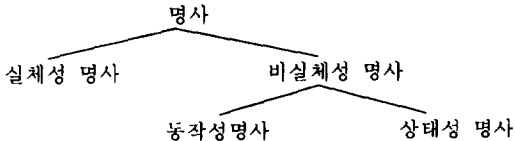
1.3 이를 위해 이 글은 [N+하다]형 어휘 구성을 합성동사로 받아들이는

것을 전제로 (1) 술어적 의미 기능을 갖고 있으면서 합성의 과정을 통해 술어화되는 비실체성 명사(noun unsubstative)의 통사·의미론적 특징을 정리하고, (2) [N+하다]형 술어화 과정을 선행 어기인 명사와 이에 연결되는 '하다'의 두 논항구조 및 통사·의미 정보를 통합 분석을 통해 설명하려는 데 목적을 둔다. 이 두 가지 연구 목적을 위해 이 글에서는 명사의 실체성과 비실체성의 구분이 갖는 자질구조상의 차이를 밝혀 이를 명시하고, 비실체성의 명사를 동작성 유무에 따라 다시 이분할 경우 드러나게 되는 각각의 문법적 성격에 대해 정리할 것이다. 또한 '하다'의 속성에 대한 기존 연구를 재검토하고 [N+하다]형 술어화에 대해 어휘소(lexeme)의 설정과 논항합성(argument composition)의 방법을 통해 대안을 제시할 것이다.

## 2. 비실체성 명사의 통사·의미 자질<sup>2)</sup>

2.1 언어 사용의 목적은 의사의 전달에 있고, 전달의 내용은 일반적으로 서술문(declarative sentence)에 의해 기술되는 의미적 상황이다. 이 의미 내용은 개체, 속성 그리고 관계라는 개념에 의하여 특성화된다.<sup>3)</sup> 서술문에 의해 전달되는 의미 요소 중 하나인 명사에 대해서는 Lyons(1968) 이래로 그 의미의 실재(實在)를 따져 실체성과 비실체성의 범주로 나누는데, 명사 가운데 순수한 사물 지시성을 갖는 명사를 실체성 명사라 하고, 사건이나 사태의 관계 속성을 본질로 하는 명사를 비실체성 명사라 한다.<sup>4)</sup> 이렇게 본다면 명사는 언어 표현이 형성하는 의미적 상황 속에 일면 '개체'로

2. 이 글에서 다루는 명사는 다음과 같은 범주 위계를 갖는 것으로 가정한다.



3. 개체란 우리가 무엇인지 인식할 수 있고 그에 작용하여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떤 대상물을 가리키고, 관계란 우리의 직관에 바탕을 두고 세상에 드러내 보여줌으로써 생겨나는 사정(circumstances)의 성질, 상태와 개체가 참여할 수 있는 활동과 과정 등을 의미한다(박효명, 1998:139~144).

4. 서정수(1996:455)에는 이 두 가지 부류의 명사를 의미에 따라 세분하여 예시하고 있다. 실체성 명사와 비실체성 명사의 자세한 구분과 어휘의 예는 서정수(1996:452~459)를 참조하라.

서, 다른 일면으로는 '관계'의 개념으로서 도입되고 또 특성화되는 셈이다.

- (1) 가. 노란 풍선이 하늘을 날면 우리 맘에도 예쁜 꽃이 피어납니다(참여연대, 아름다운 사람들).  
 나. 편견을 버리고 신세대를 바라보자.  
 다. 문화의 변화는 시대 정신의 변화를 수반한다.  
 라. 발해에 대한 오랜 연구를 통해 노 교수는 우리 민족의 잊혀진 과거를 복원해냈다.

(1)의 예문에는 역시 두 가지 부류의 명사들이 사용되었다. '풍선, 꿈, 편견, 신세대' 등의 명사는 그 자체가 서술문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 내용의 대상 혹은 개체이다. 물론 표현하기에 따라서는 '문화적 편견, 가치관에 대한 편견' 등과 같이 부가적 요소가 더 첨가되어 의미 내용을 한정할 수는 있지만, 그렇더라도 그 명사의 대상성 혹은 개체성을 변개시키는 것은 아니다. 이 실체성 명사들은 그것들이 노출된 문장 속의 서술어—'날다, 피어나다, 버리다, 바라보다'—들이 만들어 내는 구체적인 의미 상황 속에 개체로 개입된다. 문법적으로 실체성 명사들은 이들 서술어의 외부 논항(external argument) 또는 내부 논항(internal argument)으로서의 자격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이와 달리 다른 부류의 명사들, 즉 '변화, 연구, 복원' 등은 외형상 동사의 서술 대상으로 드러나지만 내부적으로는 이미 하나의 다른 상황을 구성하고 있다. 이 상황은 명사에 의해 나타나는 서술의 관계를 형성해 줄 별도의 행동주와 수동주를 통해 구성되는데, 말하자면 '연구'는 그 자체가 술어의 논항이면서 동시에 '연구자와 연구 대상'의 설정을 통해 형성되는 '연구 상황'을 내적으로 이미 전제하고 있다. 결국 명사의 실체성과 비실체성의 차이는 사물과 사건의 구별에 의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지시성과 관계성의 대비에 의해 이루어질 수도 있다. 다시 말하면 통사구조를 형성해 가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실체성 명사와 비실체성 명사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실체성 명사는 그 자체가 대상 표현인 데 비해 비실체성 명사는 독자적인 사건(event) 구조<sup>5)</sup>를 갖는다는 점이다.

5. 사건구조는 상황의미론적 용어인 사태(state of affairs)와 유사한 개념이다. 이 구조에는 사건(사태)을 구성하는 행위자와 행위 내용, 행위 상황 등이 내재하게 된다. 후술하겠지만, 명사 가운데 동사적 상황 요소를 내포하고 동작성의 특징을 보이는 것들이 있는데(예: 공부, 독서 등), 이 명사는 사건구조(사태)를 갖는 명사라 할

여기에서 우리는 상황의미론에서 사용하는 ‘정보소(infon)와 상황’이라는 개념을 토대로 실체성 명사와 비실체성 명사의 의미 기능의 차이를 정리해 볼 수 있다.<sup>6)</sup>

(2) 명사 ‘풍선’과 ‘연구’의 정보소(infon)<sup>7)</sup>

가. <풍선, instance : 풍선 ; 1>

나. <연구, situation : [(x,y) : <연구, actor : x, under-goer : y ; 1> ; 1>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체성 명사 ‘풍선’은 하나의 개체이다. 이에 비해서 비실체성 명사 ‘연구’는 개체가 아닌 그 자체가 하나의 상황으로 받아들여진다. 이 상황은 x와 y라는 개체 사이의 관계에 의해 유지되는데, 이때 개체 x는 ‘연구’라는 관계 상황의 행동 주체가 되고, y는 그 관계 속에 대상이라는 역할 속성으로 도입된다.<sup>8)</sup>

2.2 정보소에 의한 실체성 명사와 비실체성 명사의 대비를 통해 두 부류

수 있다.

6. 상황의 구성소를 정보소(infon)라 부르기 시작한 것은 K.Devlin(1991)에서 비롯되었다. 음운론의 단위를 음운(phoneme), 의미론의 단위를 의소(sememe)라 하듯 정보(information)의 단위를 정보소(infon)라 칭한 것이다. 정보소란 특정 상황 안에서 유지되고, 또 이 상황을 구성하는 단위 정보를 일컫는다. 그러므로 언어학적으로 의미 있는 구체적인 상황이란 하나 혹은 그 이상의 단위 정보소들이 결합하여 형성되고, 정보소가 달라짐에 따라 자연히 상황도 달라진다는 인식을 전제로 한 것이다. 이 정보소는 자질구조의 한 유형으로, 그리고 의미적 정보를 기술하는 중요한 요소로서 다루어진다.

7. 정보소는 관계, 역할과 역할 부여 대상, 그리고 극성(polarity)을 다음의 형식으로 표시하는 것이 상황의미론에서 일반적이다.

정보소: <관계, 역할과 역할 부여 대상 ; 극성>

8. (2나)의 도시는 필자가 기본정보소와 관계추출법을 결합하여 수정 표시한 것이다. 정보소는 흔히 상황을 기술하거나 또는 분류한다고 말한다. 이는 각 정보소에 대응하는 상황, 즉 정보소가 유지되는 상황이 존재함을 뜻한다. 상황과 정보소 사이에는 아래와 같은 관계가 성립한다.

[(s): <support, situation : s, infon :  $\sigma$  ; 1>]

이러한 상황 표시를 상황의미론에서는 관계의 추출(relation abstraction)이라고 부른다. 관계의 추출이란 매개물 x, y, …를 가진 매개정보소  $\sigma(x, y, \dots)$ 가 주어지면 매개물 x, y, …에 의하여 역할이 제시되는 관계 [(x, y, …): $\sigma(x, y, \dots)$ ]가 존재한다고 가정하는 것을 말한다. (박효명 1998:157)

가 비록 문법범주나 통사 기능의 면에서는 ‘명사’라는 테두리로 통합될 수 있지만, 의미와 정보의 면에서는 서로 차이가 있음을 명시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다. 이 대비가 통사·의미론 기술에 사용되기 위해서는 적절한 자질 구조로 명시되어야 하고, 이 자질 구조 속에서도 실체성과 비실체성의 차이가 분명한 자질의 차이로 드러나야 한다.

(3)은 명사(정확하게는 실체성 명사)의 통사·의미 정보를 속성(attribute)과 속성값(attribute value)의 행렬로 나타낸 것이다. 중요한 것은 ‘풍선’과 같은 실체성 명사는 실제 상황이나 문장 표현 속에서 다른 상황을 유도하지 않는 개체요, 이름(name)의 역할을 담당한다(“CONTEXT” 정보 참조). 이러한 명사의 특질은 통사적으로도 그대로 반영되어 논항과 관련된 아무런 정보도 갖지 못한다(“CATEGORY” 정보 참조).

핵어문법(HPSG)이 취하는 정보의 표시 방법은 상황의미론의 그것처럼 속성과 속성값을 통한 형식화이다. (3)과 같이 상황의 정보는 물론이려니와 통사 정보까지를 같은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어 일관성을 유지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3)에서 보듯 실체성 명사는 ‘이름(name)’이라는 상황 정보를 담고 있으며, 이 이름은 구체적인 대상 — 여기에서는 □이라는 대역기호(tag)가 지시하는 개체 —에 부여된 것이라는 정보를 나타낸다.<sup>9)</sup> 그리고 통

9. 대역기호(예:□)는 구조공유(structure share)를 통해 특정 대상의 통사·의미 정보의 총합체임을 전제한다. 자세한 이론적 설명은 Pollard, Carl & Ivan A. Sag

사적으로는 (4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문법범주가 명사이며, 포화된 범주이므로 별도의 논항구조([ARG-ST])를 갖지 않고, 주어([SUBJ])나, 목적어 등의 보충어([COMPS]) 정보도 갖지 않는다.

2.3 비실체성 명사는 독자적인 사건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문장의 논항으로만 사용되는 실체성 명사와는 통사·의미적 기능이 다르다.

- (4) 가. 내가 투덜댄 것도 무진에서는 항상 자신을 상실하지 않을 수 없었던 과거의 경험에 의한 조건반사였었다.(김승욱, 무진기행)  
 나. 영수가 입사시험에 합격했다.  
 다. 야당은 국회에 등원하기로 결정했다.  
 라. 노사 양측은 협상안에 동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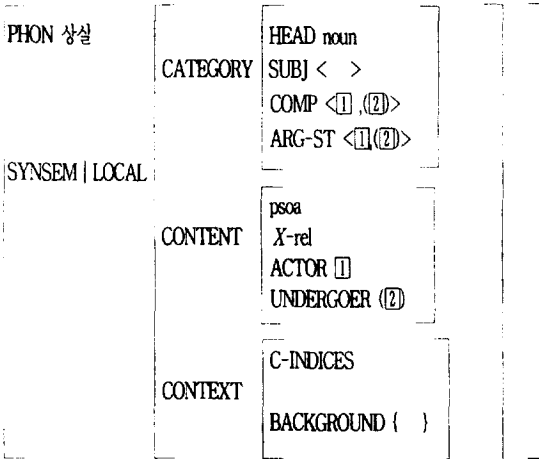
(4)에 제시된 [N+하다]형 동사를 구성하는 명사 '상실, 합격, 결정, 동의' 등은 앞에서 본 '풍선'류의 명사와 다른 여러 특징을 갖고 있다. 첫째, 예문을 통해서 살펴본 이 명사들은 반드시 보충어(complement)를 필요로 한다는 것이고, 이 보충어들은 여느 동사와는 달리 외견상 동사를 구성하는 '하다'에 의해 도입되지 않고 모두 명사에 의해 도입된다는 점이다. 예컨대 '상실'의 행동주는 '사람'이고, 그 대상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누구나 그 대상이 무엇이든 존재할 것이라는 예측을 한다. 만약 이 예측이 불가능하다면 이 문장은 비문이 된다. 둘째, 비실체성 명사는 사건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하다'를 생략하고서도 문장의 서술어 역할을 할 수 있다(5).

- (5) 가. 홍 선수, 어제 김 감독과 함께 구단주를 방문(김창섭 1997:249).  
 나. 북한 선수단, 어제 특별기편으로 서울에 도착.  
 다. 유엔 안보리, 동티모르 평화유지군 파견 결정.  
 라. 불법 주정차 차량에 과태료 부과

이 점은 비실체성 명사의 술어적 성격을 명백하게 드러내는 것으로, 이 술어적 성격이란 바로 논항구조를 갖는 특성과 사건구조를 갖는 의미 속성이 구문상에 투영된 결과이다. 이러한 비실체성 명사의 특성은 (2)에서 본 바와 같이 상황 요소를 기본 정보소로 갖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일반화하여

속성-속성값 구조로 표시하면 (6)과 같다.

(6)



비실체성 명사를 그 의미 특성상 몇 가지 부류로 세분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비실체성 명사라 해서 모두 일률적으로 (6)과 같은 속성-속성값 구조를 갖는 것은 아니다. 비실체성 명사는 크게 동작성 명사와 상태성 명사로 구분될 수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동작성이나 상태성이나 하는 것은 용언을 분류할 때 사용되는 기준이다. 동사를 동작성 용언이라 하고 형용사를 상태성 용언이라 하는 것이 바로 그 예이다.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명사가 사건구조를 갖고 있다는 사실은 그 명사의 의미 속성 중 동작이나 상태를 표현하는 특성이 내재해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다.

(7) 가. 동작성 명사

동작, 경주, 건설, 부탁, 씌름, 인사, 굿, 노래, 노름, 다짐, 손질, 발달, 진보, 생각, 신앙, 사랑, 사모, 존경, 상상, 기억, 연구 등

나. 상태성 명사

평온, 소란, 평탄, 건강, 정직, 온순, 건실, 성실, 미안, 다정, 열심, 친절, 가난, 얌전, 점잔, 부지런 등



이들 명사는 비실체성이면서 '인간의 힘이 미칠 수 있고, 인간이 역동적으로 작용하여 어떠한 결과를 낳을 수 있는 대상이며 행동을 지칭하는 속성'(임홍빈 1998:517)을 갖기 때문에 '하다'와 어울려 서술어를 만들 수 있다. 그런데 동작성 명사와 상태성 명사는 논항구조상의 보충어 정보에 차이가 있다.

(8) 가. 동작성 명사의 통사 자질

CATEGORY	HEAD noun
	SUBJ < >
	COMP <① ②>
	ARG-ST <① ②>

나. 철수가 국어학을 공부한다.<sup>10)</sup>

다. 남자들은 군대 경험을 과장해 말하는 버릇이 있다.

(9) 가. 상태성 명사의 통사 자질

CATEGORY	HEAD noun
	SUBJ < >
	COMP <①>
	ARG-ST <①>

나. 국민들은 올해 우리 경제에 대해 낙관한다.

다. 정동진에서 우리는 민박했다.

위 도식과 예에서처럼 동작성 명사는 내부 논항과 외부 논항을 모두 수반하는 데 비해 상태성 명사는 외부 논항만을 이끈다. 이에 덧붙여서 외부 논항을 취하는 전형적인 범주는 형용사이다. 상태성 명사가 '하다'동사와 결합하여 형용사를 파생하는 것은 전적으로 상태성 명사의 이러한 자질 속

10. 혹자는 이 논항들이 명사의 논항이 아니라 [N+하다]형의 동사가 취하는 논항이라고 생각할지 모른다. 필자는 비록 서술어로서 [N+하다]가 사용되었지만 이 문장의 논항은 명사가 요구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고, 그 이유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자세하게 논의할 것이다.

성 때문인 것으로 이해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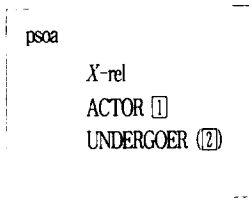
여기에서 한 가지 언급할 문제는 비실체성 명사의 논항은 그것이 사용된 문장의 서술어가 요구하는 논항과 중복되는 일이 있는데 이때 이 논항이 명사의 논항인지 아니면 '하다'의 논항인지를 구별하여 말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정희정(1997)에서는 명백히 '하다'가 아닌 명사가 논항을 요구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하여 필자도 명사가 외부 논항을 취하는 것으로 본다(다음 예는 정희정 1997의 것이다.).

- (10) 가. 회사측은 노조간부들과 협상을 했다.  
 나. 회사측은 노조간부들과 협상했다.  
 다. 회사측은 노조간부들과 협상, 사태를 해결했다.
- (11) 가. 연회는 혼자 서울에 올라가기로 작정을 했다.  
 나. 연회는 혼자 서울에 올라가기로 작정했다.  
 다. 연회는 혼자 서울에 올라가기로 작정, 그 준비를 시작했다.

(10, 11)의 예에서 첫째, '협상을 했다'와 '협상했다'의 비교를 통해 알 수 있듯이 '하다'와 함께 쓰이는 명사의 성분이 달라짐에도 불구하고 전체의 의미는 아무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점 둘째, 밑줄 친 성분은 '하다'가 요구하는 것이라 볼 근거가 없다는 점과 주어의 유정성과 무정성의 변화에 대해서도 '하다'가 의미적으로나 통사적으로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는 점 셋째, '하다'가 실현되지 않아도 선행하는 명사만으로도 서술어 기능을 할 수 있다는 점 등은 명사가 논항을 요구하는 술어적 성격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글의 서두에서부터 우리는 비실체성 명사가 독자적인 사건구조를 갖는다는 사실을 여러 차례 언급해 왔다. 이 사건 구조는 의미 부분의 사태(state of affairs)로 형식화된다.

(12)



(12)의 행렬은 임의의 사태 관계([X-rel])를 표시하는 명사가 의미론적으로 행위자([ACTOR])와 수동자([UNDERGOER])를 수반하여 특정 사태를 구성한다는 정보를 보여준다.

지금까지의 논의에서 얻어진 비실체성 명사의 성격은 (13)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 (13) 가. 비실체성명사는 사건이나 사태의 관계 속성을 본질로 한다. 따라서 실체성 명사가 대상 표현인 것과 달리 비실체성 명사는 사건구조를 갖는다.
- 나. 비실체성 명사는 논항구조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술어적 성격이 강한 함수자(functor) 명사이다.
- 다. [N+하다] 구성을 통해 동작성 명사는 합성동사를, 상태성 명사는 합성형용사를 이룬다.

### 3. '하다'의 기능과 범주에 대한 재론

3.1 Ritter & Rosen(1993)은 실질적인 의미가 없고, 의미역( $\theta$ -role)을 부여하지 못하는 술어를 가리켜 함수 술어(functor predicate)라 하였다. 우리에게는 함수 술어라는 용어가 경동사(light verb) 혹은 기능동사(functional verb)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져 있는데, 경동사 범주를 인정하는 연구자들은 그 대표적인 예로 '하다' 동사를 들고 있다. '하다' 동사를 함수 술어로 인정하는 것은 그 용례상 타동사 '하다'로 쓰이는 경우보다 명사에 붙어 '공부하다'와 같은 합성어를 구성하는 예가 더 많음을 염두에 둔 까닭이다. 이 주장을 그대로 따른다면 타동사 용법이 아닌 '하다' 동사는 실질 의미의 결핍, 의미역 부여 능력의 부재 등의 원인으로 말미암아 실제 문장에서 술어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므로 별도의 의미역 부여자인 명사와 함께 어울려 술어가 되는 특징이 있다는 것이다. 어쨌든 선행어기와 결합하는 '하다'는 이를 동사나 형용사로 만드는 특징이 있음이 분명하다. 이는 학교문법에서 '하다'를 파생접사로 분류하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남기심·고영근 1993: 202~203). '하다'를 파생접사로 보는 입장에 서면 동형태의 '하다'를 통사적 양태나 분포에 따라 자립동사와 파생접사의 두 가지로 분석해야 하는 약점이 있지만, '하다'를 피동의 '되다'와 대립되는 능동의 접사로 인정함으로써 얻게 되는 이론적인 편리성도 있다.

그러나 '하다'가 '되다'와 대립된다 하더라도 '되다'는 동사 파생의 단역만을 말지만, '하다'는 형용사 파생의 또 다른 기능을 갖고 있다는 점이 단일한 이론 체계를 구상하는 연구자에게는 고민거리가 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아예 접사 '하다'는 인정하지 않고 본동사로서의 '하다'가 명사형성(noun incorporation)과 같은 특정의 절차를 거쳐 선행어기와 합성동사를 형성하는 것으로 단일화하고, 여기에 덧붙여 형용사 '하다'를 설정하여 동사인 '하다'와 형용사인 '하다'의 두 체계를 세워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sup>11)</sup>(고재철 1996, 1999).

'하다'형 어휘들 중 '싱글병글-, 변-, 깨끗-, 편-, 좋아-' 따위는 '공부하다'의 어기 '공부'가 독립적인 것에 비해 그 자체가 독립적으로 쓰이는 경우가 거의 없는 예들이다. 그러므로 이들 어기에 '하다'가 결합하여 이루는 동사 혹은 형용사는 통시성을 따진다면 파생의 과정을 겪은 것들이겠지만 공시적인 측면에서 보면 별도의 어휘형성규칙을 세워 설명할 성질의 것은 아니어서 어휘부(lexicon)에 단일 어휘로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전제해 두어도 좋을 듯하다. 다만, 문제의 초점이 되는 부분은 독립적 용법을 갖고 있는 명사가 단어 형성의 어기가 되어 '하다'와 결합함으로써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 내는 과정에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첫째, '공부하다, 노래하다, 가열하다' 등의 [N+하다]의 어형성 과정이 '지붕, 꼬락서니, 먹이다' 따위와 같은 환원 불가능성<sup>12)</sup>을 특징으로 갖는 어휘적 파생도 아니어서 일반적인

11. 이른 시기 동사 '하다'의 기능이 다양하다는 기초적인 관찰은 '하다'에 대한 논의의 틀 일으키는 계기가 되었다. 주시경(1910)과 최현배(1937)은 그 대표적인 연구로서 '하다'가 동사로 사용되는 것 외에 선행 요소와 결합하여 동사나 형용사를 이루게 하는 점에서는 '진성접미사'의 기능을 나타내고, 부정 보조동사나 부정 형용사로 사용되는 것을 보면 보조용언의 기능을 드러내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는 주장이 그것이다. 본문에 소개된 연구뿐만 아니라 비교적 최근에 이루어진 채희락(1996)에서도 '하다'의 다기능성이 지적되었는데, 형태적으로 본다면 동작성 명사와 결합하여 경동사 구문을 이루는 '하다'는 단어로, 상태성 명사와 결합하여 경형용사 구문을 이루는 '하다'는 의사어 혹은 접어(clitics)로, 그리고 일부 어근에 붙어 단어를 이루는 '하'는 접사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펼 바 있다. 한편 서정수(1994)에서는 기존에 제시된 '하다'에 대한 주장을 종합하여 7가지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비록 서정수(1994)의 분류와 정리는 '하다'의 의미 특성에 바탕을 둔 주장과 형태론적 측면에서 제시된 주장, 그리고 통사론적 입장의 주장들이 따로 구별되지 못하고 한데 섞여 다루어지고 있는 아쉬움이 있다. 정와 논자(서정수) 자신은 '하다'를 기능동사로 분류하고, 의미는 없으며, 문장 속에서 대행기능을 맡는 것으로 결론짓고 있어 다른 연구와 큰 차이를 드러내지는 못하였다.

12. '공부하다, 노래하다, 가열하다' 등의 동사는 원래의 어기인 '공부, 노래, 가열'

접미 파생의 범주에서 벗어나는 면이 적지 않고, 둘째, 품사를 바꾼다는 면에서는 다른 통사적 파생과 한가지이지만 통사적 구구성과의 구분이 확실하지 않아서 ‘공부하다 : 공부를 하다, 노래하다 : 노래를 하다, 가열하다 : 가열을 하다’에서처럼 그 경계를 서로 자유롭게 넘나든다는 특성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3.2 ‘하다’의 범주와 기능을 접사, 기능동사, 보조동사, 포괄동사 등으로 인식하는 일군의 연구자들은 기본적으로 ‘하다’가 실질적인 의미를 갖지 못한 요소여서 그 기능이 지극히 형식적인 것으로 제한된다는 생각을 공유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N+하다]형 동사가 사용된 용례들을 몇 가지만 살펴보더라도 술어의 중심의미를 드러내는 것은 고스란히 ‘하다’ 선행어기인 명사이기 때문이다.

- (14) 가. 사랑하는 것은 사랑을 받느니보다 행복하나니라.(유치환. 행복)  
 나. 내 마음은 무거운 근심에 짓눌려 깊이 모를 연못속을 자맥질한다.(심훈. 영원의 미소)  
 다. 신불이든 하늘이든 거기다 비결을 감추어 놓 때는 언젠간 그것이 쓰일 때가 있겠어서 그것을 감추어 두었지, 거기다 영원히 쳐깎해두자는 것은 아니었을 것이오.(송기숙. 녹두장군)  
 라. 이 날은 대보름이라 정침지의 아들이 동네사람들과 같이 달마중하리 산에 올라갔다가 …(홍명희, 임격정)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랑하다, 자맥질하다, 쳐깎하다, 달마중하다’ 따위의 합성동사에서 중요한 그리고 본질적인 의미는 여기인 명사에 실려 있다. ‘하다’는 이 동사들에 대해 실질적인 의미 기능을 담당하지 않고 명사에 술어성을 부여하여 술어화하는 문법적 기능 즉 형식요소로서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인지 [N+하다] 술어화는 예나 지금이나 가장 손쉽고 널리 쓰이는 어휘 형성의 방법이다.<sup>13)</sup> 과거부터 많은 연구자들이 이

등을 분석하여 다시 명사와 동사로 돌려놓을 수 있지만, ‘지붕, 꼬락서니, 먹이다’ 따위는 원래의 어기인 ‘집, -음, 풀, -악서니, 먹, -이-’ 등으로 분석하여도 자립하지 못하므로 독립된 어휘로 처리하지 못한다. 대부분의 어휘적 접사는 후자의 경향을 띤다. 그러므로 어휘적 접사는 통사적 접사에 견주어 환원 불가능성의 특징을 갖는다고 말할 수 있다.

13. 가. 凡犯罪已發又犯罪者 從重科斷

⇒ 凡前犯罪狀已發爲去乙(하거늘) 又犯罪爲在乙良(하였거든)

점에 주목하여 '하다'를 형식요소로 규정하여 왔다.

의미를 논할 때 '실질적 의미'란 무엇을 말하는가? 대부분의 연구에서 '실질적 의미'라는 용어는 '실체적 의미' 또는 '의미 실체'의 개념으로 쓰이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 의미는 실체적 의미보다 더 넓은 의미를 갖고 있다. 말하자면 형식이나 모습에 구애되지 않고 본바탕이 되는 의미를 갖고 있는냐를 따져 의미의 실질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 (15) 가. (나무는) 친구가 오면 다행하게 생각하고, 오지 않는다고 하여 불행해 하는 법이 없다. (이양하, 나무)  
 나. 그런 생각을 하자 나는 쓴웃음이 나왔다  
 다. 다른 어느 곳에서도 하지 않았던 엉뚱한 생각을, 나는 무진에서는 아무런 부끄럼없이, 거침없이 해내곤 했었던 것이다.  
 라. 아이들은 그런 얘기를 높은 목소리로 하고 있었다. (이상 김승옥, 무진기행)

(15)의 예문에 사용된 '하다' 동사를 눈여겨 보자. (가)의 동사 '생각하다'가 '생각 + 하다'의 어휘 구성을 갖는 것으로 분석하면 이 동사의 실질적인 의미 기능은 '마음 속으로 헤아리거나 판단하거나 인식하는 일이나 작용'이라는 의미를 갖는 명사 '생각'에 담겨 있으며, 이때 동사 '하다'는 명사 '생각'이 드러내는 '일 또는 작용'을 술어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을 뿐이라 말할 수 있다. 이를 보면 '하다'는 문법 기능을 변화시키는 작용을 할 뿐 자체의 의미를 동원하여 새로운 의미를 생산하거나 변화시키는 실질적인 의미 기능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 문장은 '하다'의 형식요소설을 뒷받침하는 예가 될 수 있다.

3.3 그런데 '생각하다'와 같이 [N+하다]형 동사는 우리가 익히 아는 바와 같이 구구성으로 자연스럽게 전환될 수도 있어서 '생각을 하다'(15나), '하다 ... 생각을'(15다), '얘기를 하다'(15라)와 같은 형식의 표현을 구성할 수

從重科斷齋(하라)(대명률직해)

나. 순회는 강가를 거닐며 데이트하던 옛 추억을 떠올렸다.

다. 그의 노래를 듣고 있노라면 마음이 센티멘털해진다.

과거 이두 표기법에서도 한자어에 '하다'를 덧붙여 우리말에 가깝게 번역하거나 새로운 동사를 만들어내어 쓰는 것이 일반적이었고, 지금도 이러한 조어법은 우리말의 중요한 어휘 늘리기 방법이다.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sup>14)</sup> 문제는 구구성의 '하다'는 단일어 구성 때와는 달리 ('무엇인가를) 행하다(perform)' 혹은 '실행하다(practice)'라는 의미를 적극적으로 보태는 것으로 여겨진다. 여기에 더하여 '하다'에 선행하는 명사는 '하다'의 내부 논항(internal argument)이 되는 것이다. 이는 '하다'가 더 이상 형식요소가 아닌 완전한 타동사라는 점을 확증하는 것이다.<sup>15)</sup>

문제는 동사 '생각하다'의 구성소 '생각'이 사고 작용이라는 대상으로 작용하느냐 아니면 사고의 구체적인 동작을 나타내느냐 하는 구분에 관한 일이다. 만약 그것이 대상의 의미라면 '하다'는 '움직임'이라는 의미를 보태는 가의적 기능을 하는 것이지만 명사 '생각' 자체에 이미 움직인다는 동작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면 '하다'는 가의정보다는 서술 형태를 채워주는 형식적 기능에 머무르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필자는 '하다'가 대상의 의미인 명사에 연결되어 움직임의 의미를 더함으로써 의미적으로나 형태론적으로 동사를 완성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즉 '생각하다' 동사는 판단, 인식과 같은 사고 작용을 동작이 아닌 대상으로 혹은 실체로서 드러내는 명사 '생각'과 '움직임 혹은 작용'이라는 실질적 동작 기술의 의미를 갖는 동사 '하

14. 한 가지 유념할 것은 [N+하다] 동사가 모두 [N을 하다]의 구구성으로 자연스럽게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 명사의 성격상 구구성의 전환이 불가능한 것이 있으니, 그 가능성의 기준은 명사의 실체성 여부인 것으로 보인다. 역시 '무진기행(김승옥)'에서 발견되는 예를 간추려 보자.

가. 자기 싫은 심부름을 억지로 갈 때 아이들이 불평을 하듯이 내가 몇 마디 입안엿소리로 투덜댄 것도, 무진에서는 항상 자신을 상실하지 않을 수 없었던 과거의 경험에 의한 조건반사였었다.

나. 미국의 작가인 핏제랄드를 좋아한다고 하는 그 후배는 그러나 핏제랄드의 팬답지 않게 아주 앞전하고 매사에 엄속하였고 그리고 가난하였다.

'상실, 앞전, 엄속, 가난' 등은 사전에 명사로 등재되어 있고, '하다'와 결합하여 형용사로 사용되는 예들이지만, '상실을 하다', '앞전을 하다', '엄속을 하다', '가난을 하다' 등의 구구성으로 쓰이는 일은 없다. 이와 관련한 '하다'의 성격에 대해서는 이 글의 말미에서 논의하려 한다.

15. [N+을+하다]형 구구성의 '하다'와 [N+하다] 어휘 구성의 '하다'는 그 특성상 구별되는 점이 있다. 어휘 구성의 명사는 '하다'의 내부 논항이되지만 구구성일 경우에는 선행 명사를 핵으로 하는 명사구가 논항이 된다. 이 점 때문에 어휘구성의 '하다'를 접사, 그리고 명사는 여기 혹은 어근으로 처리하는 예도 있다. 이렇게 보면 구구성과 어휘구성 사이에는 비록 의미의 변화를 수반하지 않고 전환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통사적인 차이가 존재하게 된다. 구구성의 문제는 본 연구의 직접적인 논의 대상이 아니므로 논의도 하되, 이 연구에서는 어휘구성의 '하다'를 접사가 아닌 타동사로 인정하는 문제와 이를 토대로 구구성의 '하다'와 어휘구성의 '하다'를 통합하여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음을 밝혀 둔다.

다'가 결합하여 새로운 동사 '생각하다'를 생산하는 것으로 이해하려 한다. 이와 같은 판단은 다음 예들에서 발견되는 '하다'의 기능 내지 의미와의 상호 관련성에 주목한 결과이다. 여기에 더하여 여러 다른 예들에 나타나는 '하다'를 동사라는 단일한 시각과 척도로 평가하려는 것이고, 이를 통해 문법기술의 일관성과 통일성을 유지하려 한다.

(16) 가. 설날에 새 옷을 해 입었다.

나. 목에는 목걸이를 하고, 팔에는 팔찌를 했다.

다. 이 사람은 국어학을 하는 사람일세.

라. 그럼다 말을 할까 하니 그리워(김소월, 가는 길)

(17) 가. 그 사람이 하자는 대로 하면 모든 일이 잘 될거야.

나. 그때 그 사람은 꿈에 돼지를 보았다고 했다.

다. 저를 좀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라. 어머니의 쇠약해진 모습이 우리를 슬프게 하다.

(16)과 (17)의 예문에 사용된 '하다' 동사는 여느 타동사나 자동사와 다름 없이 통사적으로 자립적이며, 실질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그러므로 첫째, 이 예문들의 '하다'는 특정한 동작을 행하는 것을 나타내는 동사이며<sup>16)</sup> 둘째, '하다'는 그 논항을 동반하고 있고 셋째, 이 예문의 '하다'는 통사적으로 그 문장들의 실제 술어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3.4 '하다'가 일정한 통사 기능과 의미의 실질성을 갖고 있는 어휘임을 다시 확인시켜 줄 다음 예를 보자. (18)의 예는 의견상 '하다'가 타동사로 사용되는 예들을 모은 것이다.

(18) 가. 파브르는 대학에서 생물학(을) 공부를 했다.

나. 우리는 햄버거와 커피로 점심을 했다.

다. 철수는 서울에서 큰 식당을 하다.

라. 최민수가 영화 유령에서 부함장 역을 했다.

16. 김영희(1988:364)에서는 '하다'가 의견이 넓고, 내포가 적은 모호성(vagueness)을 띤 동사 즉 그의 용어로는 포괄동사의 속성을 갖는다고 했다. 실제로 본문의 '하다'는 구체적으로는 '만들다(16가), 걸다, 끼다(16나), 공부하다(16다), 말하다(17나), 바라다(17다), 상태에 이르게 하다(17라)'는 의미를 갖는다.



이 예문에서 '하다'는 선행하는 명사 '공부, 점심, 식당, 역'을 내부 논항으로 취하는 타동사이다. 그렇지만 '공부를 하다'가 '공부하다'로 변형되는 것처럼 구구성이 어휘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점을 들어 많은 논자들은 '하다'의 타동사 기능을 인정하려는 데에 대해 소극적이었음이 사실이다. '공부하다'처럼 선행 명사가 동작성을 띠 경우에는 어휘화가 비교적 자연스러우나, 그것이 '하다'의 동사성을 부인하는 절대적인 근거는 되지 못한다. 대부분의 논자가 '하다'의 동사적 성격을 인정하는 '실체성 명사 + 하다'의 구성에서도 이러한 구구성의 어휘화 변형이 쉽게 발견되기 때문이다. 이는 곧 위에서 말한 '하다'의 동사적 성격을 부정하는 논거가 되기 어렵다는 것을 확인시켜 줄 뿐이다. '점심, 식당' 등의 실체성 명사가 쓰였을 때 비록 어휘화 변형이 수월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각주에 제시된 용례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sup>17)</sup>

그런데 (18라)의 예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 문장은 '최민수가 영화 유령에서 부함장 역했다'라고 하면 오히려 자연스럽지 못한 문장이 된다. 이런 예들로서 다음의 몇 가지를 더 생각해 볼 수 있다.

- (19) 가. 한 나라에 대한 평가는 그 국민의 문화 수준을 척도로 한다.  
 가'.\* 한 나라에 대한 평가는 그 국민의 문화 수준을 척도한다.  
 가".\* 한 나라에 대한 평가는 척도로 그 국민의 문화 수준한다.  
 나. 이번 남북회담의 대표를 누구로 할까?  
 나'.\*이번 남북회담의 대표를 누구할까?  
 나".\*누구로 이번 남북회담의 대표할까?

목적격 명사와 '하다'가 통합되지 못하는 이러한 예에서 그 명사의 속성이 동작성을 갖지 못한다는 사실을 이유로 제시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목적격 명사가 [N+하다]의 구성을 이루지 못하는 한 그 명사는 술어로 기능하지 못한다는 사실이고, 명사의 술어화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이들 문장의 실질적인 술어 기능은 오직 '하다'에 귀결된다는 점이다. 이 말은 '하다'가

#### 17. 예를 들면

- 가. 김 선생, 점심했어요?  
 나. 두 분이 오랜만에 만나셨으니 같이 저녁하시면서 말씀을 더 나누시지요?  
 다. 서울에서 식당하는 큰아들 내외가 어제 광주에 내려왔다.  
 라. 요즘 벤처기업해서 돈버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김영희(1988)의 지적과 같이 의미의 외연이 넓고 내포가 적어 포괄성을 특징으로 하는 동사일 수는 있을지언정 '실질적인 의미가 없는 형식요소'이거나 '허형태성을 특징으로 하는 동사화소'라고 보는 기존의 입장은 그 설득력이 현저하게 훼손될 수밖에 없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3.5 여기에 더하여 한 가지 반드시 생각해 보아야 할 중요한 문제가 있다. '하다'가 완전한 자립의미를 갖고 쓰인다면, 실제 문맥에서 그에 상응하는 현상이 분명히 통사적으로도 드러날 것이라는 점이다. 그 한 가지 근거 자료를 찾아 볼 수 있다.

- (20) 가. 남과 북은 회담의 의제와 절차 문제를 확인했다.  
 나. 남과 북은 회담의 의제와 절차 문제를 다시 확인을 했다.  
 다. 남과 북은 회담의 의제와 절차 문제를 확인을 거듭 했다.  
 라. 남과 북은 회담의 의제와 절차 문제를 확인을 정확하게 했다.

만약 '하다'가 실질적인 의미를 갖지 못한 허형태라면 '하다' 자체만으로는 동사의 기능을 하지 못하리라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당연히 그 선행요소인 명사가 중심적인 술어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20가)의 '확인하다'는 명사 '확인'과 동사 '하다'로 쉽게 분리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다'는 부사의 수식을 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다(20 나, 다, 라).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서 부사의 수식을 받을 수 있으며, 명사를 통사적 논항으로 취할 수 있는 '하다'는 통사적으로 동사이며, 의미적으로도 완전한 어사라는 점만은 확실해 보인다. 그러므로 우리는 [N+하다]의 구성을 이름과 동시에 [N을+하다]형식의 표현도 구성할 수 있는 '하다'의 두 가지 특성을 동시에 고려하여 '하다'는 동작 또는 행위의 실질적인 의미를 갖고, 그와 관련되는 명사를 논항으로 취하는 동사라고 정리할 수 있다.

#### 4. [N+하다] 동사의 어휘 구조와 논항합성

4.1 [N+하다] 합성동사에 대한 지금까지의 논의를 진행해 오는 과정에서 우리가 풀어야 할 핵심적인 문제가 동작성 명사와 상태성 명사에 '하다'가 연결되는 경우, 앞에서 살펴 본 이 두 가지 유형의 명사들의 문법적 속성과 속성값 정보가 '하다'의 그것과 어떻게 조화되어 새로운 동사의 통사·

의미 정보를 산출하는가에 대한 의문으로 자연스럽게 압축되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유의하고자 하는 것은 비실체성 명사에 연결되는 '하다'를 완전한 의미와 문법 기능을 갖춘 동사로 인정한다는 점이다. 필자는 앞에서 여러 예문을 통해 '하다'를 실질적인 의미가 없는 형식요소이거나 허형태성을 특징으로 하는 동사화소라고 보는 기존의 입장은 설득력이 약함을 지적하였다. 비록 기존의 일부 연구에서 '하다'를 접미사로 처리하려는 노력이 있었음에도 동사를 파생하거나 합성동사를 형성하는 '하다'를 모두 자립동사 '하다'로 처리하여 일관된 설명이 가능하다면, '하다'의 다기능설보다 더 바람직한 설명법이 아닐까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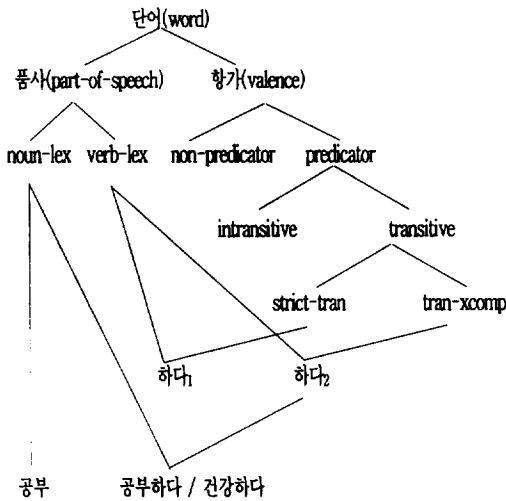
앞에서 살핀 바를 토대로 하여 '하다'가 [N+하다] 구성에서처럼 실질적인 동사의 기능을 담당하든, [N+하다]에서처럼 통사적으로는 '동사 형성소'이지만 의미적으로는 선행 명사를 논항으로 취하는 동사의 기능을 하든 일단은 문법적으로 독립된 기능과 의미를 갖고 문장 구성에 적극적으로 개입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하다'에 대해서 그 통사·의미 자질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이 물음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하여 '하다'와 명사의 성격에 따라 어휘구조를 분석해 보기로 한다.

4.2 핵어문법(HPSG)에서 어휘의 구조를 기술하는 방법으로 채택한 기반이론인 단어와 어형변화 모형(word and paradigm model)이라는 방법론에서는 단어를 기술하는 기본 단위를 어휘소(lexeme)라고 가정한다<sup>18)</sup>(박효명 1998:419). 이 방법에 의지하면 어휘기호는 단어와 단어의 구조를 기술하기 위한 기본 단위인 어휘소라는 유형으로 하위 분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어휘소는 단어의 구조를 기술하기 위하여 속성-속성값 행렬내에 나열되는 기본적인 어휘유형이며, 단어는 어휘적 실체를 지닌 이 어휘소로부터 도출되는 언어적 실체를 나타내는 유형이다. Ackerman(1994)은 단어가 어휘소 자범주(lexical daughter)를 가지는 것으로 가정한다. 그리고 이 자범주를 LEX-DTR (=LEXEME DAUGHTER)라는 속성으로 나타내고, 이를 모든 단어에 적절한 속성(attribute)인 것으로 가정하고 있다. 이를 받아들이면

18. 단어의 구조를 기술하기 위한 이 어휘소는 그 안에 단순한 접사(affix)나 기본적인 어휘형태를 지닌 모든 것을 포함한다. 또한 모든 어휘소는 각기 어휘부에 나열되는 어휘적 실체를 지니며 음운적으로 실현된 임의의 기본적인 유형이다. 반면에 어휘소보다 더 큰 언어기호인 단어는 이 기본적인 어휘유형인 어휘소로부터 도출된 언어적 실체로서 하나의 유형이라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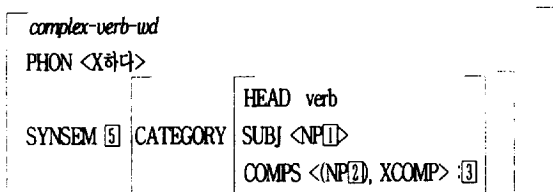
모든 단어들은 어휘소로부터 도출된다는 가정이 자연스럽게 보장된다. 이에 따라 우리가 해결하고자 하는 [N+하다]형 동사의 단어 유형의 위계와 정보의 내용은 다음과 같은 구조를 갖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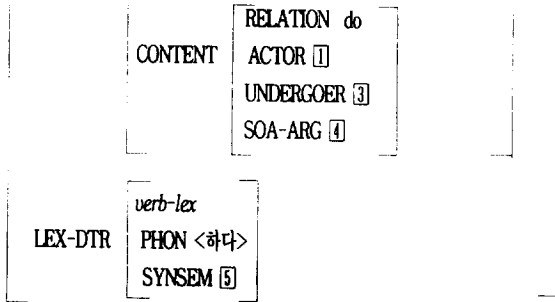
(21)



(21)의 도식은 명사와 타동사 '하다'의 결합에 의한 새로운 어휘의 도출을 전제로 한다. 여기에서 주의할 것은 '공부하다'와 같은 동작성 명사가 어기인 경우와 '건강하다'와 같은 상태성 명사가 어기인 경우를 구별하지 않고 어휘의 위계에서는 [transitive-xcomp]형 자질의 어휘소를 가진 동사 '하다'와 결합하여 얻어지는 것으로 가정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명사와 결합하여 새로운 동사와 형용사를 형성하는 '하다'의 통사·의미 자질은 (22)와 같은 내적 구조를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22)





위와 같은 자질 구조(19)의 동사 '하다'가 동작성 명사나 상태성 명사와 연결되어 새로운 슬어를 형성할 경우, 이미 앞에서 살핀 바와 같은 명사의 통사·의미 자질정보가 이 '하다'의 자질 구조에 어떻게 수용되며, 이 과정에서 논항구조는 어떤 변화의 과정을 겪는지가 분명하게 설명되어야 한다. 이에 대한 해결의 방법으로서 논항합성(argument composition)의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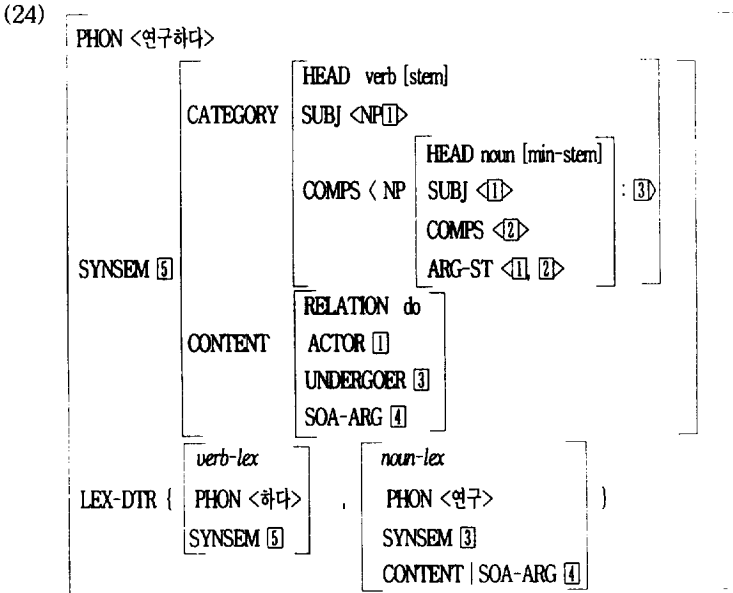
(23) 논항합성(argument composition)

서로 다른 논항을 취하는 둘 또는 그 이상의 어사가 통사적 합성의 과정을 거쳐 합성동사를 형성할 경우, 상위 슬어(higher predicate)는 하위슬어(lower predicate)와 그 논항까지를 하위범주화한다.

(23)의 논항합성의 방법은 합성동사를 만들어내는 별도의 어휘규칙을 구상할 필요가 없이 단일한 원리 체계를 통하여 문법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19. 위 도식을 살펴보면 구체적으로 실현된 단어는 반드시 속성 LEX-DTR를 가진다. 의사 전달을 위하여 실제로 사용되는 단어의 내부에는 언제나 어휘소가 가진 정보, 즉 LEX-DTR가 가진 정보가 포함된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도출되는 어형은 하나의 어휘소로부터 자질의 공유와 제약의 전수를 통해 만들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예이다. 부연하면, 의사소통의 단계에서 사용되는 단어를 나타내는 유형인 complex-verb-wd는 두 어휘성분인 X와 '하다'를 입력부로 삼아 여기에 어휘규칙을 적용하여 최종 합성동사를 얻는 것과 비슷한 과정을 보여준다. 이렇게 보면 단어들의 수평적 관계를 기술하는 어휘규칙과 여기에서 제시된 어휘구조는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러한 설명법은 예시적이고 선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어휘구조에 대한 이러한 논의가 아직 학계에 받아들여져 확정된 상태가 아니라 지금도 논의가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자세한 이론적 설명은 Manning & Sag(1995) 참조.

4.3 '연구하다'와 같은 '동작성 명사+하다'의 예에서 논항구조에 대한 기술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속성과 속성값 행렬을 통해 살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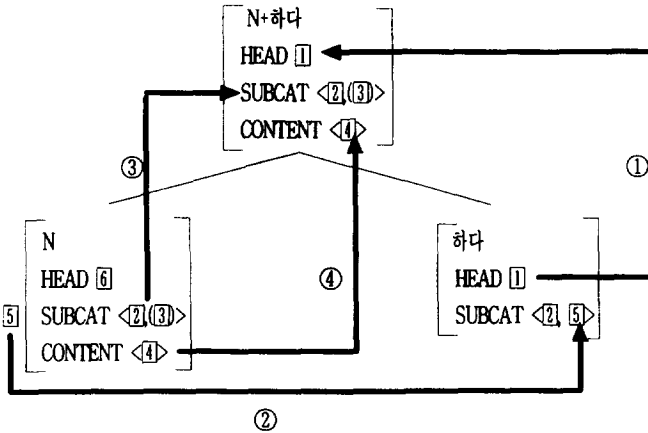


(24)의 행렬을 통해서 보는 바와 같이 합성동사 '연구하다'는 일차적으로 어휘소 '하다'와 '연구'의 통사·의미 정보를 그대로 전수받는다. 특히 어휘소 '하다'의 통사정보(SYNSEM[5])는 그대로 합성동사의 정보로 반영되고, '연구'의 정보는 동사 형성소 기능의 '하다'가 취하는 보충어(논항)의 정보가 된다. 여기에서 유의할 것은 비록 합성동사의 통사·의미 정보는 어휘소 '하다'에 의해서 결정되지만 그 의미 상황 정보(SOA-ARG[4])와 하위범주화 정보는 전적으로 어휘소 '연구'의 정보를 그대로 전수받는다. 이는 곧 명사의 사건구조는 곧바로 합성동사의 의미 형성에 기여하여 전체의 의미를 형성하는 중심 의미소로 작용함을 보여주고 있어, [N+하다]형 합성동사의 통사 구조와 의미해석의 정보는 하위의 어휘소와 관련성을 통해 볼 때 선행어기인 비실체성 명사가 주도적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합성동사 구성소인 '하다'는 비실체성 명사의 논항과 사건구조 전체를 포괄적인 논항으로 취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를 개괄적으로

도시하면 (25)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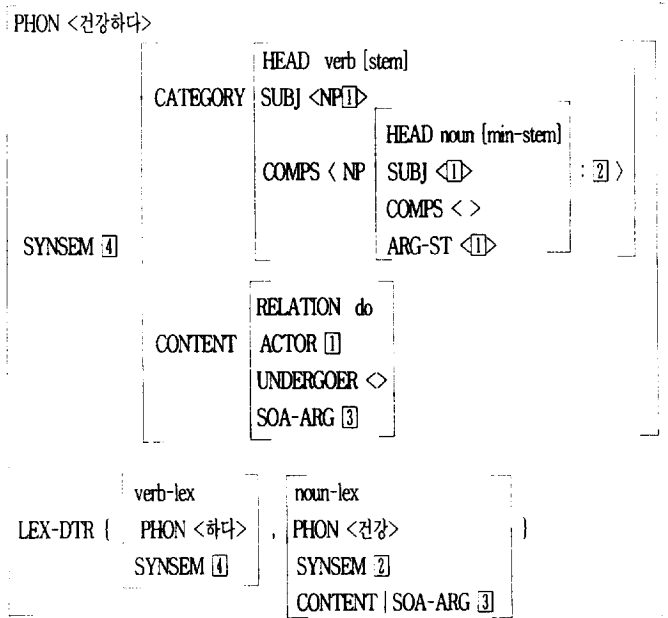
(25)



[N+하다] 합성동사에서 통사·의미 정보의 흐름을 (25)의 도시를 통해 정리해 보자. 타동사인 '하다'는 통사적으로는 합성동사 [N+하다]의 핵어가 되고(①), 핵자질원리(HFP)에 의해 자질 정보가 전수된다. '하다'는 동시에 논항으로서 명사를 유도하게 된다(②). 이때 유도되는 명사는 단순히 명사 범주만을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명사의 통사, 의미, 화용적 정보를 총체적으로 유도한다. 중요한 것은 앞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명사는 동사 '하다'의 논항이면서 동시에 그 자체가 사건구조를 갖고 있는 명사라는 특성 때문에 사건구조 속에 노출되는 다른 명사와 명사상당어구들의 정보를 그대로 모범주인 합성동사에 전달하여 합성동사의 외부 논항과 내부 논항의 존재를 드러내는 항자질 정보의 내용을 구성하게 된다(③). '하다'가 통사적으로 합성동사의 통사적 핵어임에 비해 명사는 합성동사의 의미와 화용 정보를 담당하게 되는데 이는 명사의 의미정보가 그대로 합성동사의 의미정보로 전달되는 것을 통해 문법적으로 실현된다(④). 여기에서 '하다'는 상위 술어로서 그 논항인 명사를 하위범주화하고, 동시에 하위술어격인 비실체성 명사의 논항까지를 모두 하위범주화 하게 되는 점은 전적으로 논항합성의 방법을 통해 구체화된다.

[N+하다]형 합성동사의 어기가 상태성 명사일 경우에도 마찬가지로의 과정과 속성-속성값 행렬을 통해 설명된다(26).

(26)



한 가지 주목할 문제는 동작성 명사가 어기로 쓰일 경우와 상태성 명사가 어기로 쓰일 경우에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문장 구조상의 차이에 관한 것이다.

(27) 가. 김영호는 그의 첫사랑 순임을 생각한다.

나. 김영호는 그의 첫사랑 순임을 생각을 한다.

다. 김영호는 그의 첫사랑 순임과 행복하다.

라. \*김영호는 그의 첫사랑 순임과 행복을 한다.

동작성 명사가 술어화된 경우에는 (27가)와 (27나)의 문장 변형이 가능하다. 그렇지만 상태성 명사는 술어화하더라도 명사가 형용사의 내부 논향으로 변형되는 일은 드문데, 이러한 차이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그 해결 방안으로서 전자는 '하다' 동사의 실효적인 논향으로 명사가 사용되는데 비해서 후자는 그 실효성이 약하다는 차이를 통해 설명하려 한다.



- (28)
- 가. 

CONTENT	RELATION do
	ACTOR ①
	UNDERGOER ③
	SOA-ARG ④
- 나. 

CONTENT	RELATION do
	ACTOR ①
	UNDERGOER
	SOA-ARG ③

‘하다’의 의미구조에서 동작성 명사는 ‘하다’의 실제 작용 대상역 ([UNDERGOER])임에 비해(28가의 예) 상태성 명사는 작용 대상역이 아니라는 점이다(28나의 예). 즉, 동작성 명사와 ‘하다’의 관계는 명사가 ‘하다’의 내부 논항임과 동시에 의미 자질에서도 명사는 ‘하다’로부터 수동자역의 기능을 받게 되지만, 상태성 명사는 ‘하다’의 내부 논항도 아니고, 수동자역을 지정받지도 못한다. 단지 상태성 명사는 합성동사를 형성하는 최소 어기([min-stem])일 뿐이라는 점에서 두 가지 구성의 차이가 형식적으로 드러난다.

## 5. 맺음말

이상의 논의를 통해 우리는 비실체성 명사가 슬어화할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비실체성 명사가 단순한 논항으로서가 아니라 독자적인 사건구조를 갖고서 슬어화에 적극적으로 개입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를 어휘소의 설정과 논항합성의 방법을 통해 형식화해 보았다. 이 글의 논의 과정에서 다루어진 중요한 사항들을 정리하여 마무리하고자 한다.

1. 명사는 그 의미의 실재(實在)를 따져 실체성과 비실체성의 범주로 나눌 수 있다. 실체성 명사는 순수한 사물 지시성을, 비실체성 명사는 사건이나 사태의 관계 속성을 각각 그 본질로 한다. 두 부류의 명사는 의미적 상황 속에서 실체성 명사는 개체로, 비실체성 명사는 관계의 개념으로 도입되고 특성화된다.

2. 사건이나 사태의 관계 속성을 본질로 하는 비실체성 명사는 사건구조(사태)를 갖는 특성을 보인다. 이런 이유로 비실체성 명사는 사태를 구성하는 논항과 논항구조를 수반하는 술어적 성격의 함수자(functor) 명사이다.
3. [N+하다]형 합성동사는 비실체성 명사와 동사 '하다'에 의해 형성된다. 각각 독자적인 논항구조를 갖는 명사와 동사의 결합과정은 논항합성의 원리로 설명될 수 있다.
4. 논항합성(argument composition)이란 서로 다른 논항을 취하는 둘 또는 그 이상의 어사가 통사적 합성의 과정을 거쳐 합성동사를 형성할 경우, 상위 술어(higher predicate)는 하위술어(lower predicate)와 그 논항까지를 하위범주화한다는 원리이다.
5. [N+하다]형 합성동사의 형성소 '하다'의 문법범주는 동사이다. 명사와 '하다'는 분리될 수 있고, '하다'는 부사의 수식을 받을 수 있으며, 선행명사를 통사적인 논항으로 취할 수 있는 점 등은 '하다'가 통사적으로 동사이며 의미적으로도 완전한 어사라는 점을 확인시켜 준다.
6. 합성동사의 통사 정보는 어휘소 '하다'에 의해서 결정되지만, 그 의미(상황) 정보([SOA-ARG])는 전적으로 어휘소 '연구'의 정보를 그대로 전수받는다. 비실체성 명사의 사건구조는 곧바로 합성동사의 전체 의미를 형성하는 중심 의미소로 작용한다. 그리고 합성동사 구성소인 '하다'는 비실체성 명사의 논항과 사건구조 전체를 포괄적인 논항으로 취한다.

이 글은 비실체성 명사와 동사 '하다'가 구성하는 합성동사에만 한정하여 살펴보았다. 연구의 범위를 제한하여 테두리를 두른다는 것이 논제를 명확하게 부각시킨다는 긍정적인 점도 있겠지만 전체의 틀 속에 존재하는 부분의 의미와 상관성을 놓칠 염려도 있다. 이 글은 아무래도 이 걱정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 같다. 앞으로 합성동사 형성에 관여하는 다른 어휘 유형들에까지 논의를 확대하여 거친 논리와 주장을 더 다듬을 필요를 절실히 느낀다.

### 참고문헌

고재설. 1996. "형용사 '하-'에 대하여", 언어학 4, 대한언어학회.

- 고재설. 1999. "동사 '하-'와 형용사 '하-'", 국어학 33, 국어학회.
- 김광희. 1998a. "동사의 범주위계와 자질제약을 통한 국어 논항구조 문법의 수립에 관한 연구", 국어학 31, 국어학회
- 김광희. 1998b. "동사의 범주위계와 자질제약을 통한 국어 논항구조 문법의 수립에 관한 연구(2)", 한국언어문학 41, 한국언어문학회.
- 김광희. 1998c. "다시 논항과 논항구조에 대하여", 국어국문학연구(남경 박준규 박사 정년기념논총), 전남대 출판부.
- 김영희. 1988. 한국어 통사론의 모색, 서울 : 탐출판사
- 김창섭. 1997. "'하다' 동사 형성의 몇 문제", 관악어문연구 22,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부.
- 남기심 · 고영근. 1993. 표준 국어문법론(개정판), 서울 : 탐출판사.
- 박효명. 1998. 핵어문법론 I, 서울 : 한국문화사.
- 서정수. 1994. "기능동사 '하-'에 대한 재론", 말 15, 연세대학교.
- 서정수. 1996. 국어문법, 서울 : 한양대학교 출판원.
- 임홍빈. 1998. "생성문법의 한 문제: '-이다'/'-하다'를 중심으로", 국어 문법의 심층 3, 서울 : 태학사.
- 정희정. 1997. "서술성 명사의 통사적 특성", 사전편찬학연구, 제7집, 한국문화사
- 채희락. 1996. "'하-'의 특성과 경슬어 구문", 어학연구 32-3,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
- 한영근. 1997. "'명사+동사' 합성구의 형태론적 특성", 울산어문논집 12, 울산대학교 국어국문학부.
- 홍재성 외. 1997. 현대 한국어 동사 구문 사전, 서울 : 두산동아.
- Ackerman, Farrell. 1994.ms. "Systemic Patterns and Lexical Representation : Analytic Morphological Words", Univ. of California at San Diego.
- Bratt, Elizabeth Owen. 1996. "Argument Composition and the Lexicon : Lexical and Periphrastic Causatives in Korean", doctoral dissertation, Stanford University.
- Grimshaw, Jane B. 1990. *Argument Structure*, The MIT Press.
- Manning, Christopher D. and Ivan A. Sag. 1995.ms. "Dissociations between Argument Structure and Grammatical Relations", Stanford University.
- Pollard, Carl and I. A. Sag. 1987. *Information-based Syntax and Semantics, vol.I: Fundamentals*, CSLI:Stanford University.
- Pollard, Carl and I. A. Sag. 1994. *Head-driven Phrase Structure Grammar*, CSLI &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Ritter, Elizabeth and Sara Thomas Rosen. 1993. "Deriving Causation". *Natural Language and Linguistic Theory* 11.

545-703 전남 광양시 광양읍 덕례리 산 223-1

광양대학 교양과

E-mail : khkim@kwangyang.ac.kr

Tel : +82-61-760-1477